

덕촌 양득중의 문학 연구*

최운정**

<차례>

1. 서론
2. 덕촌 양득중의 작품 평가 기준
3. 덕촌 문학의 주제별 특징 양상
 - 1) 치심(治心)과 지족(知足)의 삶 추구
 - 2) 혼란한 세태(世態)와 대응 의식
 - 3) 의리와 실상(實狀) 중시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덕촌집(德村集)』 권4-6의 잡저(雜著)에 수록된 텍스트를 중심으로 덕촌 양득중의 작품 평가 기준과, 주제별 특징 양상을 고찰하였다. 덕촌의 작품은 문예적인 글보다는 이념적인 논점을 위주로 제시한 것이 많다. 특히, 시작품은 양적으로도 적고, 시적 감흥에 의한 개인 서정시보다는 특정 상황에서 교유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시작(詩作)을 한 경우가 많았다. 덕촌은 시를 짓게 된 계기나 당시 상황을 작품의 제목이나 보충 설명으로 직접 남겨서 당대의 세태나 쟁점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덕촌이 직접적으로 문학과 관련된 언급을 한 것을 찾기는 어렵지만, 그가 교유했던 인물들을 평가한 글이나, 그의 논설류 작품 등의 내용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었다. 덕촌은 허위(虛僞)를 배격하고 실사(實事)에서 올바른 길을 구하는 실학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학문관이 특정 인물과 작품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였다. 덕촌은 인물이나 작품의 외부적인 현달함이 아니라 내부의 세세함을 관찰하는 것, 허위가 아닌 근본을 추구하는 정신, 형식적인 앎이 아닌 자득(自得)한 지식을

* 이 논문은 2020년도 용인대학교 학술연구비 재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 용인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실천하는 것 등을 중요시하였다.

덕촌 문학의 주제별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치심(治心)과 지족(知足)의 삶을 추구하였다. 외부적인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역량에 맞는 일을 해나가면서 순리에 따르는 자세를 작품 속에서 구현하였다. 둘째, 혼란한 세태(世態)에 대한 대응 의식이 나타났다. 덕촌은 자신이 믿고 있는 진실과 도리를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 성찰하고, 지인들과 소통한 과정을 교류시로 남겼다. 셋째, 의리와 실상(實狀)을 중시하는 양상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덕촌의 문학 세계는 명분보다는 실질을 중시하고, 논리적인 비판 의식이 강한 특징을 지니는 당대 소론계 문학의 특징과도 연계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덕촌 문학의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이는 소론계 문학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소론(少論), 치심(治心), 지족(知足), 의리, 실상, 허위, 비판

1. 서론

본 연구는 덕촌 양득중(梁得中, 1665~1742)의 문학 세계를 살펴보고자 기획한 것이다. 덕촌은 명재 윤증의 학문 경향을 계승한 제자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동안의 연구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특히, 문학 분야의 연구가 미진하였는데, 이는 『덕촌집(德村集)』에 수록된 작품들이 문예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사상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글이 많은 것과는 일정하게 연계된다.

덕촌 사상에 대한 초기 연구는 1970년대 유명종에 의해 비교적 일찍 이루어졌으나,¹⁾ 후속 연구는 2000년대 이후에서야 이어졌다.²⁾ 초기 연구에

1) 유명종(1977), 「덕촌 양득중의 실학 사상-양명학과 실사구시의 절충」, 『한국학보』 6, 일지사, 175~188쪽.

2) 이상성(2007), 「명재 윤증과 덕촌 양득중의 학문 교류고」, 『한국사상과 문화』 40집, 한국사상문화학회, 167~209쪽.

서 덕촌의 사상은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양명학에 의거하여 논리화한 것으로 평가받았다.³⁾ 후속 연구에서는 양득중이 스승 윤증의 ‘진실의 공부’로 영조 임금에게 직간(直諫)한 것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⁴⁾ 또한, 양득중의 학문을 ‘양명학적 실심(實心)에 기반한 실학’으로 규정하는 것이 그의 학문 성격에 보다 부합하는 것이라고 파악한 연구도 있었다.⁵⁾

또한 최근에는 구체적인 작품을 대상으로 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양득중의 조포 고사 인식과 그 의미를 고찰한 연구가 있었다.⁶⁾ 그리고, 『덕촌집』에 수록된 논설류(論說類) 작품의 특징을 살펴본 연구,⁷⁾ 〈사직소(辭職疏)〉와 〈등대연화(登對筵話)〉를 중심으로 덕촌 양득중의 시대 인식과 대응 양상을 고찰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⁸⁾ 그리고, 덕촌 양득중의 가계와 추승에 관한 연구도 최근에 이루어졌다.⁹⁾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를 수용하면서 『덕촌집』에 수록된 작품을 보다 범위를 넓혀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덕촌집』은 10권 5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고에서 살펴볼 글은 대부분 권4-6 잡저(雜著)에 수록된 것이다. 권4에는 총 10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덕촌이 15세에 저술한 〈이기론(理氣論)〉부터 말년에 지은 글까지 수록되어 있다. 권5에는 서발

3) 유명중(1977), 앞의 논문, 188쪽.

4) 이형성(2009), 「明齋 尹拯에 대한 後代 評價와 追崇」, 『유학연구』 20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46~147쪽.

5) 한정길(2013), 「德村 梁得中 학문의 양명학적 성격에 관한 연구」, 『陽明學』 34호, 한국양명학회, 87~88쪽.

6) 이미진(2019), 「덕촌 양득중의 조포 고사 인식과 그 의미」, 『어문연구』 47권 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83~308쪽.

7) 최윤정(2020a), 「덕촌 양득중의 論說類 작품 연구」, 『동양고전연구』 78집, 동양고전학회, 275~310쪽.

8) 최윤정(2020b), 「덕촌 양득중의 시대 인식과 대응 양상 -〈사직소(辭職疏)〉와 〈등대연화(登對筵話)〉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1집, 이화어문학회, 5~35쪽.

9) 김승대(2020), 「덕촌 양득중의 가계와 추승에 관한 연구」, 『陽明學』 58호, 한국양명학회, 5~64쪽.

(序跋)과 서후(書後) 등 11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6에는 통문(通文)·만필(漫筆)·제문(祭文)·축문(祝文) 등 20편의 글과 13제 24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시작품은 양적으로도 적고, 대부분 교유관계에서 나온 것이며, 시적 감흥에 의한 경물시나 서정시는 별로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요소 때문에 그동안 덕촌의 문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덕촌 작품의 특징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서는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텍스트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체로 소론계 문학은 명분보다는 실질을 중요시하는 특징이 있는데,¹⁰⁾ 『덕촌집』에 수록된 문학 작품 연구를 면밀히 한다면, 당대 소론계 문인이나 학자였던 덕촌의 위상을 밝히는데 일조하리라 예상한다. 본고에서는 당대 시대상이나 덕촌 양득중의 생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작품을 선별하여, 덕촌의 작품 평가 기준과, 덕촌 작품의 주제별 특징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¹¹⁾

2. 덕촌 양득중의 작품 평가 기준

당대에 덕촌 작품에 대한 평가는 주로 책문(策問)이나 논(論), 부(賦)에 대한 것이 남아 있다. 안여해(安汝諧)는 덕촌이 14세 때에 지은 책문을 보고 크게 놀라며 글로 면려하였는데, “안으로는 학포(學圃: 양팽손)의 가성(家聲)을 떨치고 밖으로는 우산(牛山: 안방준)의 의열(義烈)을 빛냈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30세에는 현석 박세채에게 글을 올렸는데, 당시 현석은 덕촌이 지은 논(論)과 부(賦)를 보고 한번 만나기를 원한다는 서찰을

10) 김영주(2004), 「조선 후기 소론계 문학이론의 형성 배경(1)」, 『동방한문학』 26집, 동방한문학회, 7쪽.

11)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작품을 선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보냈다고 한다.¹²⁾

그리고, 덕촌의 외증손인 윤인기(尹仁基)가 저술한 『덕촌집』의 발문(跋文)에는 덕촌 문장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전략) 학문을 하는 것은 오로지 진실무위(眞實無僞)를 위주로 하여 문장으로 발현되었으며 늙을수록 더욱 순후하였다. 무릇 의리의 변별은 간독(簡牘)에 있고, 경륜(經綸)의 지혜는 장소(章疏)에 있다. 기타 잡저는 시대를 슬퍼하고 시속을 안타까워하는 말이 아님이 없어 하나같이 허위를 배척하고 실질에 힘쓰는 뜻에서 나왔다. 시대를 슬퍼함이 지극한 까닭에 시속을 안타까워함이 간절하고, 시속을 안타까워함이 간절한 까닭에 말이 깊었으나 말세(末世)가 도도(滔滔)하여 지견(知見)이 불합(不洽)하였으니, 마땅히 선생은 당시에 용납되지 않았고 선생의 책 또한 지금 세상에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다.(후략)¹³⁾

주로 덕촌의 산문 작품의 특징점을 제시하였고, ‘의리와 실질’을 강조한 그의 사상과 특징에 주목하였다. 시대를 슬퍼하고 시속을 안타까워한 덕촌 작품의 특징은 당대에 용납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을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다.

한편, 『덕촌집』에서 덕촌이 직접적으로 문학과 관련된 언급을 한 것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그가 교유했던 인물들을 평가한 글이나, 그의 논설류 작품 등의 내용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덕촌은 허위(虛僞)를 배격하고 실사(實事)에서 올바름을 구하는 실학을 강조하였으며,¹⁴⁾ 이러한 학문관

12) 『德村集』 年譜 戊午年, 甲戌年 참조.

13) 『德村集』〈德村先生集跋〉, “(前略)爲學 專以眞實無僞爲主 發爲文章 到老益醇 凡義理之辨 在於簡牘 經綸之謨 在於章疏 其他雜著 無非傷時病俗之辭 一皆出於斥虛務實之旨 而傷之至 故病之切 病之切 故言之深 末世滔滔 知見不合 宜乎先生之不容於當時 而先生之書亦難容於今世也(後略).”(본고에서 인용한 원문과 번역본 텍스트는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https://www.itkc.or.kr/main.do>)를 활용하였음. 이하 권수만 표기)

이 특정 인물과 작품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였다.

덕촌이 옥봉 백광훈(白光勳, 1537~1582) 선생과 그의 아들인 송호공 백진남(白振南, 1564~1618) 가문(家間)의 유묵(遺墨)을 살펴보고 지은 글에서 덕촌의 작품 평가 기준을 살펴볼 수 있다.

(전략) 아, 선생의 시문과 서법의 묘함은 진실로 이미 나라에서 빛났고 중국 조정에게까지 소문이 났었다. 역시 이미 죽백(竹帛)에 써서 전해준 것이 끝이 없고, 또 이미 집에 보관해 두어 사람들에게 의우도록 하니 밝게 사람들의 이목을 비추었으며, 송호공의 계술(繼述)의 뜻도 저와 같았다. 소지는 바야흐로 발돋움하여 양모하기도 부족하고, 본받을 겨를도 없는데 어찌 구구한 찬탄을 할 수 있겠는가.

다만 이 장첩을 가만히 살펴보니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집을 바르게 한 방법이 자상하였다. 더욱 간절히 뜻을 극진히 해야 할 것은 일찍이 부부가 집안에 있는 사이와 인륜의 처음이 만들어지는 시초에 있지 않음이 없었다. 이는 『중용(中庸)』에서 인용한 <상체(常棣)>의 시로 “처자 간에 정이 좋고 뜻이 합하며, 형제간이 이미 화합하여”의 말에서 “너의 실가를 마땅하게 함”에 이르렀으니, 孔子가 말한 “이렇게 되면 부모가 그 편안하실 것이다.”의 뜻이다. 정부자(程夫子)는 “『주관(周官)』의 법도는 <관저(關雎)>와 <인지(麟趾)>의 뜻에서 직접 근본했다.”라고 말했으나, 아, 지극하다. 자제들에게 과명(科名)을 구하여 이 세상에 치신하기를 권유했다면, 다만 그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도록 가르쳤을 것인데 한 번도 공리를 피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의와 리, 득과 실의 사이에서 곧바로 반듯하여 벼랑이 우뚝 선 듯하였다.

그 선생이 스스로 한 일에서는 바야흐로 큰 이름을 누리고, 밝은 때에 처하여 군자가 휘정(彙征)의 기회를 탓음에도 오히려 매양 구원(丘園)의 즐거움에 연연하여 영진(榮進)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으니 아, 그 마음속에 보존된 것을 알겠다. 그 마음속에 보존된 것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담박하고 깨끗한 지조와 맑고 화려한 기운이 시와 문장이 되어 드러나고, 초서와 예서가 되어 드러났으

14) 한정길(2013), 앞의 논문, 91쪽.

니 그 뛰어나고 특별한 것이 이와 같았다. 어찌 자잘하게 배웠다면, 이와 같은 시와 이와 같은 글씨이겠는가. 상상해보건대 그 한때의 명현 무리들인 율곡과 우계 같은 여러 선생들이 서로 함께 마음을 기울여 공경하고 소중히 여긴 것은 홀로 그 밖의 시와 글씨뿐만이 아니니 그 이택(麗澤)의 이익과 학문의 공을 이에 속일 수 없다. 이는 나만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이는 사람이 드물다. 그러므로 감히 그 뒤에 가만히 기록하여 돌려보내고, 구구한 양모의 사사로움을 보였다.¹⁵⁾

이 글은 덕촌이 39세인 1703년(숙종29)에 쓴 것이다. 옥봉 선생의 시서(詩書)가 높이 평가되는 이유는 공리를 피하지 않는 마음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파악하였다. 자제들에게 과명(科名)을 구하는 처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집을 바르게 하는 방법을 자상하게 안내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담박하고 깨끗한 지조와 맑고 화락한 기운이 시와 문장이 되어 드러나고, 초서(草書)와 예서(隸書)가 되어 드러났다.’고 극찬을 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그 다음해에 쓴 〈백옥봉가장초(白玉峯家狀草)〉에서도

15) 『德村集』 권5 〈書白玉峯松湖兩世家問後 癸未〉, “(前略)嗚呼 先生詩文與書法之妙 固已華國而聞於中朝矣 亦既書之竹帛而垂之無窮矣 亦既家藏而人誦之 赫然照人耳目矣 而松湖公繼述之意又如彼 小子方且跋慕之不足 師法之不暇 豈其區區贊嘆之所可及哉 但竊觀夫是帖 於飭躬正家之道詳矣 尤所惓惓而致意者 未嘗不在於夫婦居室之間人倫造端之始 此中庸所引常棣之詩 而言妻子好合而兄弟既翕 而至於宜爾室家 而子曰父母其順矣乎之意也 程夫子語周官之法度 而直本之關雖麟趾之義也 嗚呼至矣 其勸子弟求科名致身於此世 則只教以盡其所當爲之道 無一計功謀利之心 而於義利得失之際 直自斬截壁立 至其先生之所自爲 則蓋方享大名 處明時 乘君子彙征之會 猶每眷戀於丘園之樂 而無慕乎榮進之心焉 嗚呼 此可以見其內之所存矣 其內之所存如是 故其恬澹皎潔之操 清通和樂之氣 發之爲詩文 發之爲草隸 其奇偉絕特 有如是也 夫豈屑屑然學爲 如是之詩如是之書哉 想其一時名賢輩 若栗谷牛溪諸先生 相與傾心而敬重之者 不獨於其外之詩與書而已也 而其麗澤之益 學問之功 於是乎不可誣矣 此則非但余乃今知之 世亦鮮有知者 故敢竊識其後而歸之 以見區區仰慕之私云。”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 글은 옥봉 백광훈의 5세손인 백수형(白受珩)이 옥봉공(玉峯公)의 묘도(墓道)에 표각(表刻)이 없는 것을 한스러워며, 친구인 덕촌에게 묘갈명을 요청한 글에 덧붙인 것이다.

백수형은 옥봉의 언행을 채록한 글의 미진한 부분을 덕촌에게 보완하여 편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덕촌은 백수형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며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였다.

(전략) “기록이 마땅히 이와 같으니 글 쓴 사람이 당연히 스스로 지어야 할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어찌 다시 차례대로 편찬하겠습니까. 다만 옥봉공이 수립한 것이 이와 같이 찬란하니 당시 벗의 성대함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묘도를 새긴 것조차 없으니 무슨 이유입니까?”하였다.

수형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일찍이 옥봉공의 외손인 안휴(安休)의 집에 한석봉(韓石峯)과 최간이(崔簡易)의 수첩이 있는 것을 보고서 대체로 공의 묘갈문은 간에게 요청하였고, 석봉은 스스로 돌에 글씨를 쓰려고 했습니다. 또 수형의 고조부인 송호공(松湖公)이 증왕부(曾王父)에게 작은 편지를 부쳤는데 말하기를 “양호(兩湖)의 관찰사가 모두 절친한 벗이니 선묘의 비석을 세우고, 선조의 글씨를 새기며, 선조의 문집을 간행할 때가 바로 지금이네.”라고 했습니다. 생각하건대 묘갈문을 짓고 쓰는 것과 같은 일은 이미 맡아서 할 사람이 있어서 또한 혹 이미 받아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돌에 새기는 어려움을 걱정하는 것이 무슨 연유인지는 알지 못하겠고, 마침내 돌에 새기지 아니하여 행장의 초(草)와 묘갈문이 함께 전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 기록 중의 묘지(墓誌)에서 대략 ‘운운이다’라고 말한 것은 가보 중에는 실렸는데, 편찬자의 이름도 쓰지 않았고 문장도 온전하지 못하니 아마도 비석에 새기려 했던 문장인데 그 절반을 잃어버린 것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하였다.(후략)¹⁶⁾

16) 권5 〈書白玉峯家狀草後 甲申〉, “(前略)錄之當如是矣 作者宜自裁焉 顧何用復纂次爲 第以公之所樹立 輝赫如此 當時朋知之盛 又如此 而卒無墓道之刻 何也 受珩曰然 曾於公之外孫安休家 見有韓石峯與崔簡易手帖 蓋請公之墓碣於簡易 而石峯自擬書諸石也 又受珩之高王父松湖公寄曾王父小簡 有曰兩湖方伯 皆至切

위 글에서 덕촌은 애초에 글을 쓴 사람이 그 글을 편찬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출하였다. 그리고, 당대 업적이 뛰어나고 교유하는 이가 많았던 옥봉이 묘도에 표각이 없었던 이유를 질문하였다. 이에 백수형은 당대 저명한 문장가인 간이 최립과 한석봉이 묘갈문을 쓰고 새기려 했지만, 어떤 연유인지 묘각을 새기지 못하여 행장과 묘갈문이 전해지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덕촌은 본인이 먼저 살펴보았던 옥봉공 가문의 유묵 속에서 옥봉공 지행의 여러 개략을 알 수 있었는데, 백수형이 이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차 질문하였다. 이에 백수형은 “이를 기록함에 삼가 그 문자가 세상에 공개된 것만을 취하고, 가문(家間)의 경우는 이 옥봉공의 사적인 글에 관계되기 때문에 감히 신지 않았습시다.”¹⁷⁾고 답변하였다.

이에 덕촌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며, 옥봉공 가문의 유묵을 상고할 것을 백수형에게 조언하였다. 첫째, 보통 사람의 좋은 행실의 위대함은 일상적인 행동의 세세함에서 나오고, 사업의 현달(顯達)은 규문(闕門)의 세밀함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잘 관찰하는 사람은 그의 위대하고 현달함이 아니라 세세하고 치밀한 것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옥봉의 글은 그 마음에 보존된 것과 처신의 방법이 다른 책과 비교했을 때 더욱 절실하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 근본을 바로잡는 태도를 강조한 것을 들었다. 특히, 부부간의 예를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이나, 남을 속이지 않는 ‘물기(勿欺)’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였다.

之友 先墓之石 先筆之刊 先集之行 此其時也云云 意若碣文之作與書 已方有當之者 亦或已受出矣 而惟以刻石之難爲慮者 未知緣何 竟未刻石 而并狀草與碣文不傳也 是錄中墓誌 略曰云云者 載之家譜之中 而不著撰者之名 文亦不全 意或此其欲石之文而逸其半耶 未可知也(後略).”

17) 위의 글, “受珩之爲是錄 謹取其文字之公於世者 家間則係是公私藪之書 故不敢載矣.”

셋째, 독서를 논의함에 경서를 근본으로 삼는 태도에도 주목하였다. 옥봉공은 자손들에게 『논어』와 『소학』 읽기를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의리의 소재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채 입으로만 외우는 태도를 경계하였다. 이는 옛 사람의 독서 방법을 깊이 얻은 것으로 후대의 구이지학(口耳之學)과 비교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넷째, 옥봉공이 시골에 살면서 사물에 응대하는 도리 또한 부지런히 다한 것도 높이 평가하였다. 옥봉은 당대 큰 명성을 누렸고, 이는 친구들이 조정에 가득하여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곧 한 터럭의 영화와 명성이 그 마음에 머물지 않았고, 초연히 늘 세속에서 멀리 떠날 생각을 두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¹⁸⁾

이 글은 옥봉공을 평가한 것이지만, 여기에서 덕촌이 강조한 내용은 다른 인물이나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물이나 작품의 외적인 현달함이 아니라 내적인 세세함을 관찰하는 것, 허위가 아닌 근본을 추구하는 정신, 형식적인 앎이 아닌自得(自得)한 지식을 실천하는 것 등은 덕촌이 지향한 가치관이자 인물과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덕촌 양득중은 ‘진실무망(眞實無妄)’을 자기 삶의 지도 원리로 삼았던 인물이다. 인품은 꾸밈이 없고 질박하였으며, 학문은 허위를 배격하고 실사(實事)에서 올바름을 구하는 실학을 강조하였다.¹⁹⁾ 이러한 사상적 특징은 문학 작품의 주제에도 일정하게 연계되어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덕촌의 문학 세계를 ‘치심(治心)과 지족(知足)의 삶 추구/ 혼란한 세태(世態)와 대응 의식/ 의리와 실상(實狀) 중시’라는 세 가지 양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8) 권5〈書白玉峯家狀草後 甲申〉

19) 한정길(2013), 앞의 논문, 91쪽.

3. 덕촌 문학의 주제별 특징 양상

1) 치심(治心)과知足(知足)의 삶 추구

〈소심재기(小心齋記)〉는 덕촌이 19세인 1683년(숙종9)에 지은 글이다. 덕촌의 백부인 양우회(梁禹會, 1635~1680)가 집 한 채를 지어 자제들을 가르쳤는데 현액을 ‘소심재’라고 하였다. 이에 〈소심재기〉를 지었는데 학문에 정진하여 선대의 가르침을 더럽히지 말라는 뜻을 기술하였다.

(전략) 대개 심(心)이란 사람의神明(神明)이니 한 몸을 주관하여 만사(萬事)를 거두는 것으로 온갖 조화가 이로부터 나타나고, 사람의 법칙도 이로부터 세워져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천지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있어서이다. 그러나 그 마음의 물건됨이 기운을 타고 발하여 변동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 혹은 나가고 혹은 들어와서 그 향함을 알 수가 없고, 외물의 요란스러운 것이 또 어지러이 이르고 중첩되어 와 틈을 엿보게 된다. 한 생각이 보존되지 않으면 몸뚱이 밖으로 내달리고, 잠깐 사이에 혹시 소홀하다면 천 리 먼 데까지 방탕히 흘러 분분히 형기(形氣)의 사사로움에 부림을 받아 본체의 비름이 이에 없어진다. 본체의 비름이 곧 없어진다면, 금수와 더불어 또한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 때문에 군자는 이것을 두려워하여 경계하고 삼가며 공경하고 엄숙히 하여 몸을 끈추 세우고 스스로를 지키면서 전전공공 깊은 못에 임하여 얇은 얼음을 밟듯이 하고, 조심조심 사당에 들어가 예법을 받들 듯이 하며, 동정(動靜) 간에 차이가 없고, 표리(表裏)에서 일관되게 하여 항상 이 마음을 엄숙하게 하여 감히 조금이라도 게으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후에야 이러한 마음이 항상 보존되어 외물에 거리끼지 않아 마음속에 태연히 백체(百體)가 명령을 따른다. 그러한 다음에 사람이 된 이치를 저버리지 않고 금수로 돌아감을 면한다. 이것이 군자가 소심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이니, 소심은 학문을 하는 데에 첫 번째 중요한 방법이다.(후략)²⁰⁾

20) 권4 「小心齋記」, “(前略)蓋心者人之神明 主一身而振萬事者也 萬化由是而發焉 人極由是而立焉 人之所以靈乎萬物而參乎天地者 正在乎此矣 然而其爲物也 乘

백부가 ‘소심재’라고 편역한 것은 관씨(管氏) 〈제자직(弟子職)〉의 ‘소심익익(小心翼翼)’의 말에서 취한 것이었다. 덕촌은 이에 대해 “소심이라고 이른 것은 그 마음을 거두어들이어 능름히 스스로를 지켜 감히 방종치 않는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마음의 본체를 바로하는 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를 항상 일관되게 실천해야 하며, 학문을 하는 기본 자세라고 파악하였다.

(전략) 이와 같은 이유로 평소 그 마음을 가다듬고 그 몸을 엄숙히 하여 용모는 공손히 하고 언어는 삼가하여 처사(處事)와 접물(接物)과 거처와 음식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소심을 두지 않음이 없었다. 그리고 자제를 가르칠 때에도 또한 일찍이 이것으로써 정성을 다하고 간곡히 하니 그 소심의 방법에 진실로 이미 마음으로 터득하고 몸소 행하며 자기에 충족하고 남에게 미쳤으니 어찌 걸치레에 힘을 써서 대략 어렵풋함을 보고 문득 구이(口耳)를 비탕삼아 알고 알은 것을 하는 사람과 비교하겠는가. 이에 특별히 이 두 개 글자를 꼬집어내어 나타내어 밝혀 벽 사이에 걸어두고 자제로서 거처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거처하게 하고, 여기에서 책을 읽게 하여 아침저녁으로 목격하고, 잠간이라도 이를 돌아보아 밥 먹고 휴식하는 사이도 없이 잊지 않도록 하여 일삼을 것이 있도록 한다면, 복을 드리우되 비름으로써 하고 그 방책을 계도하는 것이 아, 깊고도 지극해질 것이다.(후략)²¹⁾

氣而發 變動不測 或出或入 莫知其鄉 而外物之擾擾者 又紛至而沓來 投間而抵隙焉 一念不存 則馳騖於軀殼之外 須臾或忽 則流蕩乎千里之遠 紛紛然役於形氣之私 而本體之正 於是乎亡矣 本體之正既亡 則其與禽獸又何擇焉 是以君子爲是之懼 戒慎祗栗 儼然自持 兢兢乎臨深履薄 屬屬乎入祠奉律 罔罔乎動靜 貫徹乎表裏 常使此心儼然肅然 不敢小懈 然後此心常存而不累於外物 泰然於方寸之中而百體從令焉 夫然後可以不負爲人之理而免於禽獸之歸矣 此君子所以貴於小心 而小心爲學問下工底第一要道也(後略).”

- 21) “(前略)故其平日所以齊其心肅其躬 容貌而恭 言語而謹 以至於處事也接物也 居處而飲食焉也 無一不在於小心 而其於教子弟焉也 亦未嘗不以此而諄諄焉懇懇焉 則其於小心之道 固已得之心而行之身 足乎己而及乎人矣 豈比夫務外者略見彷彿而便爲口耳之資之淺淺者爲哉 於是乎特拈出此二箇字 表而章之 揭諸壁間

덕촌은 백부가 항상 매사에 ‘소심(小心)’했던 것을 높이 평가하며 걸치례에만 힘썼던 당대인들의 가벼운 처신과 대조하였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후학들이 이러한 자세를 본받아 마음을 다스리고, ‘심중(心中)에 각인하여 잠시도 잊지 않고, 소중히 받들어 힘써 지킬 것’²²⁾을 강조하였다. ‘소심재’는 백부인 양우회가 주로 강학한 가학(家學)의 중심 공간이었고, 이곳에서 함께 장성한 덕촌의 종형제들은 장성해서도 우애 있게 교유를 지속했던 것으로 파악된다.²³⁾

또한, 덕촌은 24세(1688년) 때에 안여해(安汝諧)의 ‘이병재’에 대한 〈이병재기(理病齋記)〉를 지어서, 마음을 정(靜)하게 하는 법을 제시하였다. 덕촌의 지우였던 안여해는 어려운 형편에도 학업을 꾸준히 하였다. 10년 넘게 과거 시험을 준비하여, 진사시에는 뽑혔으나 문과 시험에는 합격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불행히도 안질이 생겨서 서책을 버려두고 약을 쓰기에 매진했으나 약이 별 효과가 없었고, 마침내 고질병이 되어 침울해하다가 ‘이병재’를 짓고 병을 다스리고자 하였다.

안여해는 자신을 찾아온 덕촌에게 〈이병재기〉를 요청하였다. 덕촌은 이에 안여해와 나눈 대화를 직접 제시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펼치는 방식으로 〈이병재기〉를 서술하였다. 안여해는 병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지만, 덕촌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며 계속 깊이 있는 생각을 유도하였다. 안여해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좋은 약을 구해 복용하는 것 → 눈을 밝게 하는 방법 제시(책 읽기를 줄임, 생각을 덜함, 내면 보는 것을 오로지 함, 외관 보기를 간략히 함, 아침에

使子弟之居焉者 居處於是 讀書於是 日夕焉目擊 造次焉顧諟 無食息之頃而不忘 有所事焉 則其所以垂裕以正 啓迪其蹊徑者 吁亦深且至矣(後略).”

22) 『中庸』 제8장,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안희의 사람됨은 중용을 택하여 한 가지 선을 얻으면 받들어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잃지 않았다(回之爲人也 擇乎中庸 得一善 則拳拳服膺 而弗失之矣).”

23) 김승대(2020), 앞의 논문, 21쪽.

늦게 일어나고 밤에 일찍 잠) → 음란함을 멀리하는 것'

하지만, 덕촌은 이러한 방법이 좋긴 하지만, 병을 근본적으로 다스리지 못 할 것이라 경계하였다. 안여해가 마침내 스스로 깨우쳐서 “옛사람의 말에, ‘마음을 움직이면 온갖 병이 생기고, 마음이 고요하면 온갖 병이 멀한다.’라고 했네. 나는 이것을 가슴에 새겨서 오로지 마음을 고요히 하는데 힘을 쏟아 이것으로 내 병을 다스리고자 했다네.”라고 하자 그제서야 덕촌은 안여해의 말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다.

(전략) 지극하고 좋아서 이에 더할 것이 없겠네. 비록 그렇지만, 또한 하나의 견해가 있다네. 대체로 마음은 억지로 고요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득실과 애환의 경계에 밝은 자만이 거의 그렇게 할 수 있다네. 대체로 득실은 일리(一理)요, 애환은 일도(一塗)인지라 그것이 음에 물리칠 수가 없고, 그것이 감에 멈추게 할 수가 없으며, 무엇을 피하고, 무엇에 편안해 하며, 무엇에 나아가고, 무엇을 물리치겠는가. 이에 밝다는 것은 누(累)가 없음을 말함이요, 누가 없다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몸이 수고롭지 않으며, 몸이 수고롭지 않으면, 정신이 어긋나지 않는다네. 눈이라는 것은 정신이 모이고, 형체의 순수한 것으로 형체가 온전하고 정신이 회복된다면, 눈은 곧바로 밝아질 것이네. 지난번에 자네가 이 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 죽도록 고생하며 오로지 과명(科名)을 구하다가 마음의 누를 얻기도 하고 잃기도 했었지. 득실이 누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였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몸이 수고로웠으며, 몸이 수고롭기 때문에 정신이 어긋났으니 자네에게 이 병이 있는 것은 의심하지 마소 (중략)

이와 같다면, 이 제에서 지낸 것이 비록 10년이 되고, 좋은 약이 만 상자라 하더라도 그대의 병은 끝내 다스릴 수가 없을 것이네. 바라건대 그대는 죽도록 고생하고 처방해 함을 그치고서 또한 누를 없애는 것이 좋겠으니, 어찌 얻음이 없고, 잃음이 없으며, 슬픔이 없고, 기쁨이 없음이 있고서 이것을 누가 없고, 생각이 없으며, 걱정이 없다고 이르겠는가. 배가 고프면 먹고, 목이 마르면 마시며, 배가 부르면 휴식을 취하고, 누웠다가 가며, 고달프면 쉰다네. 잠이 들면 영혼과

교유하고, 잠에서 깨면 형체를 열어서 해가 가고 달이 옴이 나와 무슨 상관이며, 추위가 가고 더위가 옴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이득하고 화락하여 홍몽(鴻蒙)을 초월하고 희이(希夷)와 혼동하면 길이 조물주와 더불어 외물에 접하더라도 인간에게 득실과 애환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네. 이에 이러한 이유로 마음이 안정되고, 몸이 수고롭지 않으며, 정신이 어긋나지 않을 것이니, 자네는 기록해 두게.(후략)²⁴⁾

덕촌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득실과 애환에 얽매이지 않는 자세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보았다. ‘눈’은 정신이 모이고, 형체의 순수한 것으로서 형체가 온전하고 정신이 회복된다면, 눈은 곧바로 밝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덕촌은 안여해가 과거 시험에 지나치게 힘쓰다가 건강을 잃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마음과 몸은 서로 관련된 것이므로, 어느 한쪽이 균형을 잃으면 다른 쪽도 어긋날 수밖에 없는 이치를 설명하였다. 마음의 안정을 먼저 찾아야 안여해가 앞서 제시했던 다른 방법도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글의 말미 부분에서는 유자후(柳子厚)의 글과 『도덕경』에 나오는 ‘홍몽(鴻濛)’과 ‘희이(希夷)’의 경지를 제시하며 세상사에 초연하게 대응할 것을 조언하였다. ‘홍몽(鴻濛)’은 천지가 생기기 전에 기운만 엉키어 있는 상태이

24) 권4 〈理病齋記〉, “(前略)至矣善矣 蔑以加矣 雖然 抑又有一說焉 夫心不可強使之靜也 惟明於得喪悲懼之域者幾矣 夫得喪一理 悲懼一塗 其來也 不可以却其去也 不可以止 夫奚避奚處 奚就奚去 明乎是者 是謂無累 無累則心靜 心靜則形不勞 形不勞則精不虧 目者精之會也 形之粹也 形全精復 目乃明矣 曩子之未有斯疾也 役役焉惟科名是求 此以得喪累其心也 得喪爲之累 故心不靜 心不靜故形勞 形勞故精虧 無惑乎子之有斯疾也 (中略) 若是則居是齋雖十季 藥之良雖萬篋 子之病 亦終莫之能理矣 願言吾子舍其所役役焉與戚戚焉者 且爲是無累者可也 安有無得無喪無悲無懼 是之謂無累也無思也無慮也 飢而食 渴而飲 飽而休 伸而行 倦而息 其寐也魂交 其覺也形開 日往而月來 何與於我 寒往而暑來 何與於我 冥冥然熙熙然 超鴻蒙混希夷 長與造物者接於物外 而不知人間有得喪與悲懼焉 若是故心靜 若是故形不勞 若是故精不虧 願吾子志之(後略).”

고,²⁵⁾ ‘희이(希夷)’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으로,²⁶⁾ 본디 무성무색(無聲無色)한 도의 본체를 말한다.

덕촌의 조언에 안여해는 그동안 자신이 취했던 ‘마음의 정(精)’을 얻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며, 덕촌의 말을 잊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다짐이 무색하게도 안여해는 4년 후에 35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²⁷⁾

한편, 덕촌은 본분을 지키며 사는 삶을 지향하였는데, 다음 〈사오와(四吾窩)〉라는 작품에서 이러한 면모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연〉

鑿吾之井耕吾田 내 샘을 파고 내 밭을 갈면서
 生長收藏一任天 생·장·수·장을 다 하늘에 맡기네
 寒往暑來天自運 한왕·서래도 하늘이 절로 움직이니
 年年耕鑿又年年 해마다 갈고 파고 또 해마다

〈2연〉

莫說蒼蒼在上天 푸름이 저 하늘에만 있다 말하지 마소
 一身還有一般天 이 한 몸도 도리어 하늘과 한가지라네
 惟於耕鑿生涯裏 오직 밭 갈고 샘 파는 생애 속에서
 隨分而安便是天 분수 따라 편안함이 곧 하늘이로세

〈3연〉

不是玄玄別有天 이득한 곳에 따로 하늘 있지 않으니
 自然之外更無天 자연 벗어나 다시 하늘이 없다네

25) 『道德經』“混希夷超鴻濛.”

26) 『道德經』“視之不視 名曰夷 聽之不聞 名曰希.”

27) 『德村集』年譜 壬申年, “덕촌은 안여해의 만사와 제문을 지어 곡하였다.”

百季三萬六千日 백년 세월이라 삼만 육천일 동안
 自往自來都是天 절로 갔다 절로 옴이 모두 하늘이지

시의 제목인 ‘사오와(四吾窩)’는 덕촌 선생의 당호(堂號)인데, ‘내 밭을 갈고, 내 샘물을 마시며, 내 천성을 지켜, 내 생애를 마친다는 뜻’이다. 이는 덕촌이 지향했던 삶의 모습을 응축적으로 보여준다. 스스로 노동을 하고, 분수를 지키며 사는 삶,知足(知足)을 느끼며 소박한 행복을 추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1연〉의 1-2구에서는 몸소 샘을 파고 밭을 갈면서, 자연의 섭리인 ‘생장수장(生長收藏)’의 이치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4구에서도 계절의 순리에 따라 세월이 흘러가고, ‘천리(天理)’가 순환함을 제시하고 있다. 덕촌은 자연을 따르면서 해마다 묵묵히 농사를 지을 뿐이다.

〈2연〉의 1-2구에서는 ‘창천(蒼天)’과 ‘일신(一身)’이 동일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늘의 이치를 따르며 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난다. 3-4구에서는 자연 속에서 노동을 하며 지내는 자신의 삶이 ‘분수(分數)’와 ‘천리(天理)’에 부합함을 제시하였다.

〈3연〉의 1-2구에서는 인간이 회구하는 별천지(別天地)가 아득한 곳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천(天)’이라는 존재는 물리적인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열망하는 이상향과도 관련될 수 있다. 그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자연 속에 공존하는 것이다. 3-4구에서는 절로 흘러가는 백년 세월도,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도 모두 ‘천리(天理)’를 따라 가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덕촌이 순리를 따르며 살고자 하는 자세는 벼슬에 나아갔을 때에도 변함 없이 유지되었다. 그는 60세인 1724년 2월에 세계익위사 익찬에 임명되어 서연(書筵)에 출입했는데, 이 시기에 계방(桂坊)의 하번(下番)으로 있을 때 지은 시에서 “세상사는 뜰구름 밖, 공명을 나는 몰라라/ 인연 따라 우연히

벼슬에 나갔으나, 가까이 모심은 기대하지도 않았네/ 통행금지에 궁중이
고요한데, 꽃향기는 여름날에 더디구나/ 전석의 물음에 대비하고자, 때때로
다시 시서를 읽어보네.”²⁸⁾라고 하며 ‘세사(世事)’와 ‘공명(功名)’에 초연한
태도를 드러내었다.

덕촌은 무조건 관직을 사양하는 것을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풍토는 오히려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하였다. 본인의 분수에 맞게 관직에 나아가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덕촌의 관직 생활은 노론과 소론의 갈등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여러 사건으로 정국이 수차례 뒤바뀌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서 순탄하지 못 했다.²⁹⁾ 앞의 시를 지은 해 8월에 경종대왕이 사망했고, 그 다음 해인 1725년에 영조가 즉위하고 을사환국을 통해 노론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자, 덕촌은 곧바로 파직하게 되었다.³⁰⁾

이러한 상황에서 덕촌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고, 주관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였다. 외부적인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역량에 맞는 일을 해나가면서 순리에 따르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2) 혼란한 세태(世態)와 대응 의식

『덕촌집』에 남아 있는 시작품이 양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덕촌은 시를 짓게 된 계기나 당시 상황을 작품의 제목이나 보충 설명으로 남겼다. 이를 통해 당대 혼란한 세태나 교유 인물들 간의 논쟁점을 짐작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작품이 그에 해당한다.

28) 권6 〈甲辰在桂坊下番趙濟博 泰萬 賦詩步其韻詠懷〉, “世事浮雲外 功名我不知 隨緣偶就列 侍近本非期 地禁宮園靜 花香夏日遲 爲需前席對 時復讀書詩.”

29) 최윤정(2020b), 앞의 논문, 10쪽.

30) 『德村集』 年譜 및 『英祖實錄』 참조

林下何曾有爵名 산림에 묻혀 어찌 벼슬 이름 두었던고
 偶然來去不須驚 우연히 오고 갔으니 놀랄 것도 없으라
 試看滿院梧桐月 집에 가득한 오동나무 달을 한번 보소
 依舊清輝一樣明 그 맑은 빛이 옛날처럼 한결같네.³¹⁾

위 시는 덕촌의 나이 53세 때인 1717년에 그의 스승 윤증이 죽은 뒤에 노론의 공격을 받아 관작을 삭탈당한 일을 겪고 지은 것이다. 윤증이 죽은 뒤 1년이 지나서, 유계가 저술한 『가례원류』의 발문을 정호(鄭澐)가 쓰면서 그를 비난하여 노론·소론 간의 당쟁이 치열해졌다. 결국 소론 일파가 거세되고 윤증과 그의 아버지 윤선거의 관직이 추탈되었다.³²⁾

시작품의 1구에서는 평생을 실직(實職)에 나아가지 않고 징사(徵士)로서 지냈던 명재 윤증이 계속 임금의 부름을 받아 본의 아니게 벼슬을 받았던 것을 상기(想起)하고 있다. 2구에서는 평생 정쟁에 휘말렸던 스승 명재의 인생을 회고하며, 추탈된 사실이 그리 놀랄 것도 없는 일이라고 수용하였다. 이렇게 복잡다난한 인생사와 달리, 3-4구에서는 ‘오동월(梧桐月)’이 한결같이 밝은 빛을 띠고 있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명재가 추구했던 지향점을 환한 달빛으로 환치시키면서 조용하게 시상을 마무리하였다. 1-2구에 제시된 험난한 세파와 3-4구의 안온한 분위기가 대조를 이루며 주제 의식을 강화하는 효과를 발한다.

이 일이 있은 지 5년 후인 1722년(경종2)에 소론과 유생 김수귀·황옥 등의 상소에 의하여 복작되었는데, 덕촌은 그와 관련된 시작품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 작품은 제목 자체에 시적 정황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임인년(1722년) 가을에 스승의 관작이 복원된 뒤, 사인 이백소 세덕이 두 수

31) 권6 〈有感師門追奪事吟成一絕〉

32) 고영진(2001), 「명재 사상의 형성과정과 한국사상사적 위치」, 『務心과 實心の 유학자 명재 윤증』, 청계출판사, 29쪽.

의 단율을 지어 기쁨을 적고 서로 축하하자, 여러 동지들이 모두 화답하기에 나도 마침내 즐렬함을 잊고 차운하여 작은 정성을 표하다》”³³⁾

〈1연〉

未墜斯文一脉傳 사문이 실추되지 않고 한 학맥 전하더니
 數窮陽九見戕賢 운수 다한 양구에 현인이 해를 당했네
 世方短處容人勝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사람이 이기지만
 道自長時有定天 도가 오래 지속되면 안정될 날 있으리라

〈2연〉

何待百季公議展 어찌 백 년 동안 공론 퍼지길 기대하라
 且看今日渙恩宣 오늘 얼음 녹듯 성은이 내려왔네
 聖君繼述如斯大 성군의 왕업 계승이 이처럼 위대하니
 休命從茲更赫然 이로부터 아름다운 명이 더욱 빛나리

제목에 제시된 이세덕(李世德, 1662~1724)은 1717년(숙종43) 윤증 부자의 신원(伸冤)을 장문으로 상소하였다가 금령을 어긴 죄로 전라도 고금도(古今島)에 유배되기도 한 인물이다.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1722년(경종2) 다시 상소하여 윤증 부자의 죄상이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³⁴⁾

〈1연〉의 1-2구에서는 스승인 명재 윤증의 학맥이 전해지다가 추탈의 화를 입게된 상황을 제시하였다. ‘양구(陽九)’는 양액(陽厄) 다섯에 음액(陰厄) 넷을 합친 음양가(陰陽家)의 술어로, 극에 달한 재액(災厄)을 말한다. 3-4구에서는 당쟁이 격화된 세상에선 권력을 쥔 자들이 일시적으로 이긴

33) 권6 〈壬寅秋師門復官後李舍人伯邵 世德 賦二首短律志喜而相賀諸同志皆和之遂亦忘拙次其韻以表微忱〉

34) 〈한국역대인물 종합시스템 DB〉(<http://people.aks.ac.kr>) 참조

듯 보이지만, 천도(天道)는 그러한 상황과 무관하게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덕촌은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2연〉의 1구에서는 인간사가 항상 정의로울 수만은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2구에서는 스승 명재의 관작이 복원된 것을 ‘성은(聖恩)’이 펼쳐진 것으로 인식하였다. 3-4구에서는 성군의 왕업의 위대함을 칭송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왕업을 찬송한 것이지만, 이면적으로 스승의 업적과 가치를 인정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 다른 시작품에서 덕촌은 전례(奠禮)의 시비(是非) 논쟁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다음 작품은 백광서(白光瑞, 1638~1716)의 장례 때에 노강서원(魯岡書院)의 유생들이 제문을 올리면서 제문의 형식과 문투를 두고 논란을 벌인 일과 관련이 있다. 백광서가 생전에 서원에 성의와 노력이 있어서 서원의 유생들이 그에게 정의(情義)가 있으니 돌아가셨을 때 전회(奠誄)로 조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덕촌은 선배가 후학에게 제사한다는 의혹과 서원의 유생들은 사람마다 정(情)이 다르다는 논리로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³⁵⁾

덕촌은 이 일과 관련하여 시작품에 다음과 같은 후기를 남기기도 하였다. “이 일로 한두 명의 사우(士友)가 근래에 상소한 일이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하여 논쟁하다가 나에게 질문하기에 할 수 없이 답변하였으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주장을 내세워 떠들기를 그만두지 않자 그들이 돌아간 뒤에 시상에 잠겨 중얼중얼 읊조리니 저절로 시어로 표현된 것이다.”³⁶⁾ 이와 관련된 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5) 권9 〈與尹大源書 丁酉二月〉

36) 권6 〈閑坐偶吟 三首○寄敬庵〉, “右有一二士友爭論近來疏事當否 既有所問 不得不答 而不能領悟 強聒不舍 於其歸後 沉吟咏歎 不覺形於永言.”

〈1연〉

世事悠悠只自知 세상사 하염없음을 나 홀로 아니
紛紛強聒轉支離 시끌벅적한 소리들 갈수록 지루해
靜觀萬理逢源處 못 이치의 근원을 조용히 관조하세
一任傍人說是非 옆 사람이 시비를 따지거나 말거나

〈3연〉

物各付時和在中 사물이 각각 부여될 때 조화가 들어있으니
強而同處儘非同 억지로 같게 하면 어떻게 같은 게 아니네
箇中無限好消息 그 속에 무한히 좋은 소식을
試問浴沂狂簡翁 욕기와 광간을 말한 옹에게 물어보련다³⁷⁾

〈1연〉의 1-2구에서 덕춘은 번잡하고 분분한 세상사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저마다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지만, 막상 제대로 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합일점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3-4구에서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않고, 조용히 근본 이치를 성찰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3연〉과 관련해서 덕춘은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을 첨부하였다. “백씨 어른의 전퇴(奠誄)에 관한 일로 여직 임사경(任思敬, 1686~1757)과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연한 마음이 없을 수 없어서 이러한 언지(言志)의 작품을 남긴 것이니, 함께 살펴주기를 바란다.”

1-2구에서는 사물에는 원래 부여된 조화가 존재하니, 이를 억지로 조정하려 하여도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특히, 덕춘이 그 다음에 다시 지은 시의 말미에 덧붙인 설명에, 1구는 “전퇴(奠誄)의 일에서 정리(情理)와 예의(禮儀)에 따라 경중의 차이를 두는 것은 곧 사물이 가지런하지 않아서이니 이는 사물의 정리이다. 그런데 그 정리를 각각 헤아리면 같

37) 권6 〈坐偶吟 三首○寄敬庵〉

으니, 이것이 곧 이른바 ‘경중은 다르다 할지라도 헤아리는 저울추는 같다.’는 것이다.”라고 제시하였다. 2구는 정과 교분의 얇고 깊음을 논하지 않고 똑같이 원유(院儒)로 평미레질하여 죽은 자를 보내면서 제물을 논의하되 흠어지고 떨어져 이어지지 않는 것³⁸⁾을 뜻한다고 하였다.

3-4구에서는 『논어』의 <선진(先進)>과 <공야장(公冶長)>편을 인용하여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본의를 은연중에 내보이고 있다. 공자의 제자 증점이 “沂水에서 목욕하고 무우단(舞雩壇)에서 바람 쐬고 한 곡조 읊고서 돌아오겠다.”라고 답한 일화와, “뜻은 크지만 일에는 소략하여 찬란히 문장을 이루었을 뿐 그것을 마름질할 줄 모르는 제자³⁹⁾와 관련된 발언은 덕촌이 지향하는 바를 제시해준다. 자연과 더불어 즐기는 자세와 진정한 실천이 따르는 삶에 대한 희구가 나타나 있다.

이 시작품에 대해서 경암 윤동수(尹東洙, 1674-1739)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경암은 덕촌의 시작품의 표현과 뜻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다시 질문하는 식으로 논의를 이어나갔다.

(전략) 보내신 맑은 시를 오랜 동안 읊어보니 의미와 맛이 모두 좋은데 누가 형에게 시에 능하지 않다고 하던가요. 편구(篇句)가 원만할 뿐만 아니라 의리를 설과함도 매우 정당하여 이치를 밝게 보심을 깊이 탄복합니다. 옆 사람들의 시비는 스스로에게 맡겨두십시오. 다만 의리의 근원은 결코 쉽게 보지 못하는 것인데 형께서는 이를 의심 없이 꿰뚫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직(汝直)의 말이 어떠하였는데 이에 개연(慨然)함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기수에 목욕하

38) 권6 <又用前韻和尹大源>, “且以奠誄事言之 自五服之親 以至宗戚姻婭朋友親疎 隨情禮有輕重者 便是物之不齊 物之情也 而其各稱其情則同 卽所謂輕重雖殊 稱錘同也 前詩物各付時和在 亦此意也 不論情契淺深 一以院儒槩之 而送往議物 散落不屬者 卽前詩強而同處 儘非同之意也.”

39) 『論語』의 <先進>과 <公冶長>, “吾黨之小子 狂簡 斐然成章 不知所以裁之.”

고” 운운하였는데, 광간(狂簡)한 늙은이에게 취한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니 마땅히 직접 뵈기를 기다려 가르침을 받겠습니다(후략).⁴⁰⁾

덕촌은 이에 화답하여 경암에게 총 5연인 한 편의 시를 지어 보냈다. 간략하게 시작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연>에서는 도리는 일상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라 제시하였고, ‘진원(眞源)’은 그르지 않다는 신념을 강조하였다. <3연>에서는 ‘충서(忠恕)’를 따르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타인과 우열을 가르는 태도를 경계하였다. <5연>에서는 ‘중도(中道)’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진실로 중용의 도를 지킬 때, 현명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사실에 부합하는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웃음을 받게 된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였다.⁴¹⁾

이상과 같이 덕촌은 혼란한 세태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진실과 도리를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 성찰하고, 지인들과 소통한 과정을 작품으로 남겼다.

3) 의리와 실상(實狀) 중시

<비효설(譬曉說)>은 우정이나 의리도 없이 서로 부합하며 무리지어 소변(疏辨)과 서원(書院)의 일만 말하는 유생(儒生)들의 교유를 풍자한 글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덕촌은 ‘비유’의 의미를 강절(康節) 소옹(邵雍)의 말인 ‘작은 것은 큰 것의 그림자이다.[小者大之影]’라는 것을 들어 작은

40) 권9 <附尹敬庵書>, “(前略)清詩諷詠之久 意味俱到 誰謂吾兄不能韻語耶 不但篇句之圓全 說義理 亦甚正當 深服見理之明也 傍人之是非 自當任之 而第義理逢源處 殊未易觀 兄則謂之洞觀無疑耶 汝直之言如何 而乃不能無慨然耶 浴沂云云 未知所取於狂簡翁者何意 當俟奉面承教耳(後略).”

41) 권6 「又用前韻和尹大源」

것으로써 큰 것을 비유하여 깨우치게 하는 원리로 설명하였다. 그 다음에는 맹자가 양혜왕을 깨우치고자 한 비유를 제시하였다.

(전략) 또 마치 맹자가 양혜왕을 깨우치고자 사람을 죽임에 정사(政事)를 가지고 한 것과 사람을 죽임에 칼날을 가지고 한 것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써 할 때 반드시 먼저 사람을 죽임에 몽둥이와 칼날이 다름이 있느냐고 물은 다음에 사람을 죽임에 정사와 칼날이 다름이 있느냐고 물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비유하여 깨우친 것이요, 이것이 이른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대개 사람을 죽임에 정사와 칼날의 다름이 없다는 것은 커서 보기가 어렵고, 사람을 죽임에 몽둥이와 칼날의 다름이 없다는 것은 작아서 보기 쉬우니, 만일 먼저 작은 것을 묻지 않고 갑자기 묻기를, “사람을 죽임에 정사와 칼날에 차이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다면, 왕은 반드시 놀라면서 감히 갑자기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먼저 사람을 죽임에 몽둥이와 칼날에 차이가 있는가를 물은 것이다. 사람을 죽임에 몽둥이와 칼날의 차이가 없음은 어린 아이도 모두 아는 바이다. 때문에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갑자기 말이 떨어지자마자 응대하여 말하기를,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제 이미 그림자를 얻었으니 어찌 형체를 벗어날 것인가. 형체가 진실로 면전에 서니 부끄러워 서로 대답한 것이다. 이에 또 계속해서 묻기를, “사람을 죽임에 정사와 칼날을 사용함에 차이가 있습니까?”라고 했으니, 왕도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갑자기 말이 떨어지자마자 응대하여 말하기를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옛사람이 비유하여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것이 대강 이와 같았다.(후략)⁴²⁾

42) 권4 〈譬曉說〉, “(前略)且如孟子欲曉梁惠王 以殺人以政之無異於殺人以刃 而必先問殺人以挺與刃有以異乎 然後乃問殺人以政與刃有以異乎 此所謂譬曉也 此所謂以小喻大也 蓋殺人以政與刃之無以異 大而難睹 殺人以挺與刃之無以異 小而易見 若不先問其小者 而卒然問之曰 殺人以政與刃有以異乎云 則王必愕然而未敢遽以爲然 故今乃先問殺人以挺與刃有以異乎 殺人以挺與刃之無以異 童兒之所共知也 故不知不覺之間 輒應口而對曰 無以異也 今既得其影矣 安所逃其形乎 形固立於面前而視然相對矣 於是又繼而問之曰 殺人以政與刃有以異乎 王亦不知不覺之間 輒應口而對曰 無以異也 古人之譬曉人 大率類此(後略).”

그 다음으로는 덕촌이 시골에 있을 때 겪었던 일화를 제시하였다. 지체 높은 무반(武班)으로 일찍이 곤수(鬪帥)를 지낸 사람이 있음을 들었다. 덕촌은 그때 상을 당해 시골에 있었는데, 문득 서울 나그네로 조문을 온 사람이 있었다. 이윽고 조문을 받고 그 사람과 더불어 상대하여 대화를 나눠보니 자못 은근하면서 해학이 섞여 있었다. 그 사람이 이미 떠나고 옆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를 물으니 성씨, 이름, 사는 곳 등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단지 자(字)만 알고 있었다. 덕촌은 이러한 존재에 대해 ‘무인(武人)의 사정우(射亭友)’라고 지칭하였다.

(전략) 무릇 서울의 사정(射亭)에서 기예를 연습한 무인은 활과 화살을 잡고 나가서 멀리 바라보아 과녁을 펼친 집이 있으면 문득 가 이르나니 사정의 수많은 활을 쏘는 사람 중에는 간혹 일찍이 함께 서로 만난 사람이 있으면 읍하여 예를 갖추었다. 인하여 그와 함께 짝을 지어 화살을 쏘았는데, 처음부터 과녁을 펼친 집이 누구의 집인지 묻지 않았고, 과녁을 펼친 집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았다. 무릇 여러 활을 쏘는 사람도 스스로 서로 모두 알 수가 없었고, 다만 오래오래 날마다 서로 좇다보니 안정(顔情)이 자연스럽게 익어 이 때문에 친절한 벗이 되었다. 오직 이와 같았기 때문에 서로 성이 무엇이고, 이름이 누구이며, 사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 사람들의 입을 좇아 부르게 되니 아는 것이라곤 자(字)일 뿐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무인의 사정우이다.(후략)⁴³⁾

무인들이 무예 수련을 위하여 활터에 세운 정자에서 만나 자연스럽게 친해지지만, 정작 상대방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보도 알지 못하고, 그저 안면만이 있는 사이일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덕촌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43) “(前略)凡京中武弁之習藝於射亭者 操弓矢而出 望見有張帳之家 則輒往而赴之 射亭許多射夫之中 或有曾與之相面者 則揖而禮之 因與之爲耦而射之 初不問其張帳之家之爲誰某之家 張帳之家 亦不問其人之爲誰某 凡諸射夫 亦不能自相語悉 只是久久逐日相從 顔情自然稔熟 因成親切之朋友矣 惟其如是 故不相知其爲何姓何名何地居生 而隨衆口而呼之 所知者字而已 此所謂武弁之射亭友也(後略).”

교유는 “서로 아는 분수가 각각 얕고 깊음은 있었으나 도의(道義)로써 서로 기약하고, 과실을 서로 바로 잡아주지 않음이 없어서 학문을 갈고 닦아 오래되어도 싫지 않았으니 절로 인륜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는 벗은 그 도가 진실로 으레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덕촌이 유생들의 교유에 문제를 느낀 것은 노강서원의 모임 및 기타 일이 있을 때 무리로 모인 사람 중에 처음부터 강의의 교분을 나눈 적이 없었고, 또한 일언반구도 의리를 이야기하거나 문자를 논하는 일이 없었던 것과 관련된다. 다만 유생의 무리가 날마다 일을 할 때에 소변(疏辨)의 일과 서원의 일만을 관심에 두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덕촌은 다음과 같이 당대 유생들의 교유를 풍자하였다.

지금 성상께서 등극한 이후로 소변(疏辨)의 일과 서원의 일이 실현된 적이 없었으니 - 마땅히 미루어 조정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교한 이후로 일시에 일이 순조롭게 되어 다 무사했다. - 문득 초월(楚越)의 사람이 되어서 눈앞의 물색만을 예사같이 점검하였다. 이로 인하여 무인의 사정우를 상상해보니, 어렵 뜻이 희미하게 그림자가 되어 서로 비추었으니 친절(襯切)을 비유하여 깨우쳤다 하겠다. 생각하건대 사는 곳이 서로 가깝기 때문에 서로의 성이 무엇이고 이름이 누구이며, 사는 곳이 어디인지는 알았으나 우정도 없고 의리도 없었으니 흡사 서로 부합한 것은 바로 이른바 우리 무리의 사정우였다. 그러나 무인의 사정우는 안정이 시종 한결같아서 달콤함 때문에 무너졌다 말할 수 없으나 우리 무리의 사정우는 반드시 그와 함께 당시 사람의 응견(鷹犬)이 되고자 했으니 그 뜻은 도리어 만 장 구덩이에 빠뜨리고자 한 이후에 그친 것과 같지 않다. 무인의 사정우는 진실로 장차 그와 더불어 비유한 것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⁴⁴⁾

44) “(前略)及至今上登極之後 疏辨事書院事 無所售焉 以不當推而上之朝廷之上下教之後 一時安帖 都無事矣 則便作楚越之人 尋常點檢眼前物色 因而像想武弁之射亭友 則依係髣髴 影來相照 可謂襯切之譬曉矣 惟其所居相近 故相與知其爲何姓何名何地居生 而其無情無義 則恰與之相符 政所謂吾輩之射亭友也 然而武弁之射亭友 其顏情終始如一 無甘壞之可言 而吾輩之射亭友 必欲與之同爲鷹犬

유생들은 자주 만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를 하기보다는 표면적인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다. 이는 마치 초나라와 월나라의 사람이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 상관인 없는 사이처럼 행동하는 것과 유사하였다.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안면만 있을 뿐 본질적인 우정과 의리가 없는 관계를 덕춘은 ‘우리 무리의 사정우’라고 지칭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양태는 당시 권력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할 뿐이라고 경계하였다. 글의 전반부에서 ‘비유’의 의미를 자세히 논의한 것은 결국 당대의 문제를 비판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복수의(復讎議)〉는 덕춘이 72세인 1736년(영조12)에 당대 실화 사건⁴⁵⁾에 대해 느낀 바가 있어 지은 것이다. 살인자는 죽인다는 법령과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는 의리 사이의 갈등에 대하여 논하였다. 덕춘이 〈복수의〉를 지은 계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략) 대체로 자식에게 있어 부모는 천하의大本(大本)으로 귀천인(貴賤人)이 모두 같아서 리(理)의 정점(正頂)이요, 정(情)의 정점이며, 의(義)의 정점이라서 모든 천하 국가만사 만물이 그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내 그것을 울분 밖으로 나타내어 만세 윤강(倫綱)의 대의를 높이 내걸었던 것이다. 사람이 금수와 다른 까닭은 그 윤강이 있기 때문인데, 사람에게 윤리는 있고 주체가 없다면, 곧 어지러울 것이다. (중략)

대저 이미 복수하는 것을 그 자식에게 허락했다면, 성군(聖君)이 허락한 것으로 이는 곧 법이 된다. (중략) 이것이 천지간 명교(名教) 중의 첫 번째 관절(關節)이니 이 의리를 안 다음에 장차 인간이 금수와 다르다는 것과 인간이 귀

於時人 不如其意則反欲陷之萬仞坑坎而後已 武弁之射亭友 固將羞與之爲譬矣.”

45) 嶺南의 朴孝娘 사건: 1709년(숙종35) 경상도 성주(星州)에서 죽산 박씨(竹山朴氏)와 순천 박씨(順天朴氏)가 산송(山訟)을 벌여 끝내 사람까지 살상했던 실화. 사건 발생 후 16년이 지난 1726년(영조2)에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 진상이 밝혀졌지만, 정작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상 〈작품 해제〉 참조)

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고금의 이 옥사(獄事)를 은폐한 것을 낱낱이 보면, 늘 경전과 율문이 서로 장애가 됨을 의심하여 좌우를 돌아보고 따를 바가 없어서 결국 법이 의리를 가리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평소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후략)⁴⁶⁾

덕촌은 이 글에서 전체적으로 한유의 〈복수장(復讎狀)〉의 논의에 대해 반박하는 식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글의 서두에서부터 한유의 〈복수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자신의 글 뒤에 한유의 글을 별도로 첨부하였다. 덕촌의 〈복수의〉는 본인 스스로도 ‘내용이 번다하지만 줄일 수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분량이 많은데, 한유의 〈복수장〉의 논의와 비교·대조하며 살펴보아야 이해가 용이하다. 먼저, 〈복수장〉의 서두 부분과 본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원화(元和) 6년 9월에 부평현(富平縣) 사람 양열(梁悅)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고서 스스로 현에 이르러 죄를 청하였다. 원화의 조칙에 “원수를 갚기 위한 살인은 진실로 상법(常法)이 있는데, 그 원통함을 풀고 죄를 청하여 죽음 보기를 마치 자기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하여 스스로 공문(公門)에 나아가 지극한 정성을 펴니 뜻은 순절(循節)에 있고 본래 목숨을 구할 생각이 없었다. 차라리 법도를 안 지키는 실수를 하여 특별히 사형을 감해줌을 따르나니 곤장 1백 대로 결정하고 순주(循州)로 유배를 보내라.”라고 하였다. 이에 사관 직방원의랑 한유가 헌의하였다.(후략)⁴⁷⁾

46) 권5 〈復讎議〉, “(前略)蓋子之於父 乃天下之大本 而貴賤之所同 理之極情之極義之極 而凡天下國家萬事萬物 無得而居其先者 是以聖人不得不出之於律文之外 以揭萬世倫綱之大義 人之所以異於禽獸者 以其 有倫綱 而人之有倫無主 乃亂 (中略) 夫既許之於其子 則聖君所許 是則爲法 (中略) 此乃天地間名教中一第關節 識得此義 然後方可以知人之所以異於禽獸與人之所以爲貴矣 然而歷觀今古之蔽此獄者 每以經律之相礙爲疑 左右顧望 莫適所從 而終不免以法狎義 尋常不勝慨然(後略).”

47) 권5 〈復讎議〉附記 〈復讎狀〉, “元和六年九月 富平縣人梁悅 爲父報仇殺人 自投

한유는 『예경(禮經)』의 예법과 법령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여러 문헌을 들어 각각의 용례를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마땅히 법률에 자세히 규정되어야 하는데 법률에는 그 조항이 없으니 조항을 빠뜨린 것이 아니라 아마도 복수를 허락하지 않으면, 효자의 마음을 손상시켜 선왕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되고, 복수를 허락하면 사람들이 법에 의존해 멋대로 살인을 해도 그 시작을 금지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둘째, 법률이 비록 성인에게서 근본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은 담당 관료이다. 경전에서 밝힌 것은 담당 관료를 제약한다. 그 의리가 경전에는 있으나 그 조항이 법률에서 깊이 빠졌는데, 그 의도는 법리(法吏)가 법에 의해서 오로지 결단하되 경술의 선비에게 경전을 인용하여 의논하려는 데에 있다.

셋째, “복수라는 이름은 비록 같으나 그 사안은 각기 달라서 백성들이 서로 복수함에 『주관(周官)』과 같이 말한 것은 지금 논의할 만하고, 혹은 관리에게 처형되는 바 〈공양전(公羊傳)〉과 같이 말한 것은 지금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⁴⁸⁾

이에 대해 덕촌은 〈복수의〉에서 다음과 같이 문제제기를 하였다. “예법과 법령은 본래 서로 표리가 되는데, 어찌 같고 다름이 있음을 말했겠는가. 그러나 오늘날 그것을 일러 같고 다름이 있다고 운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양열의 복수를 가리켜 그것을 사람을 죽였다고 말한 때문이다.”⁴⁹⁾ 즉, 한유가 양열이 ‘복수’한 것을 ‘살인’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예법과 법령이

縣請罪 勅復仇殺人 固有彝典 以其伸冤請罪 視死如歸 自詣公門 發於至誠 志在循節 本無求生 寧失不經 特從減死 宜決杖一百 配流循州 於是史官職方員外郎 韓愈獻議云云.”

48) 위의 글

49) 권5 〈復讎議〉, “禮律本自相爲表裏 有何同異之可言 而今乃謂之有異同云者 無他 指梁悅之復讎 謂之殺人故也 指復讎之梁悅 謂之殺人.”

서로 다르다고 오인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덕촌은 당대(唐代)에 “양열을 때려 유배를 보낸 것은 아버지를 위해 복수한 사람에게 원망을 샀은 것이며, 이미 법에 마땅하지 않고, 또한 의리도 얻지 못하였으니 진정 이는 법으로 의리를 가린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 덕촌은 복수와 살인을 다른 개념으로 보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삼대(三代) 이전에는 풍화를 앞세우고 형벌을 나중에 하여 법령과 의리가 서로 표리가 되었으나 의리가 항상 법 밖에서 초연하였고, 복수하는 일은 어디서든 거리낌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진한(秦漢) 이후에 의리가 점점 어두워져 법령만 한갓 존재하게 되었고, 복수하는 것을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음의 논의가 있게 되었다.”⁵⁰⁾

덕촌은 정당한 복수를 허락하는 것만이 이후에 서로 원수로 여기는 길을 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는 상명(償命)이 복수이고, 이 복수를 균등히 하는 것이 국가에 있어서는 법이 되며, 그 자식에게는 의리가 된다고 파악하였다. 덕촌은 정당한 복수 행위를 통해 그 이후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덕촌이 다른 논설류(論說類) 작품에서도 부자간의 도리를 ‘일본(一本)’으로 칭하고, 효(孝)의 가치를 충(忠)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나 다른 가치에 견주어 말하지 않고, 절대적인 가치로 강조한 것⁵¹⁾과도 일정하게 연계된다. 한유가 개별적인 복수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파악한 것과는 달리, 덕촌은 복수의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덕촌은 논설류 작품에서 당대의 허위 의식과 문제점을 고사(故事)를 인용하여 논리적으로 비평하는 식으로 글을 저술하였다. 또한, 의리와 실상을

50) 위의 글, “(前略)三代以前 先風化而後刑罰 法與義相爲表裏 而義常超然於法之外 故復讎之事 隨處無碍 (中略) 秦漢以後 義漸晦而法徒存焉 故於殺人者死 人皆知其爲止殺之法 而於子之復讎 反不免有疑於輾轉相讎之弊 於是始有許與不許之論(後略).”

51) 이미진(2019), 앞의 논문, 300~301쪽.

중요시하고, 합당한 근거에 바탕한 논리적인 비판 의식이 두드러지는 공통점이 있다.⁵²⁾

덕촌은 당대에 마땅한 도덕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의리에 맞는 판단을 내리고자 하였고, 허위가 아닌 實狀(실상)에 부합하는 삶을 지향하였다. 이상 살펴본 작품에도 이러한 가치관이 반영되어 나타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덕촌집』 권4-6의 잡저(雜著)에 수록된 텍스트를 중심으로 덕촌 양득중의 작품 평가 기준과, 작품의 주제별 특징 양상을 고찰하였다. 덕촌의 작품은 문예적인 글보다는 이념적인 논점을 위주로 제시한 것이 많다. 특히, 시작품은 양적으로도 적고, 시적 감흥에 의한 개인 서정시보다는 특정 상황에서 교유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시작(詩作)을 한 경우가 많았다. 덕촌은 시를 짓게 된 계기나 당시 상황을 작품의 제목이나 보충 설명으로 직접 남겨서 당대의 세태나 쟁점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덕촌집』에서 덕촌이 직접적으로 문학과 관련된 언급을 한 것을 찾기는 어렵지만, 그가 교유했던 인물들을 평가한 글이나, 그의 논설류 작품 등의 내용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었다. 덕촌은 허위를 배격하고 실사(實事)에서 올바른 것을 구하는 실학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학문관이 특정 인물과 작품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였다. 덕촌은 인물이나 작품의 외부적인 현달함이 아니라 내부의 세세함을 관찰하는 것, 허위가 아닌 근본을 추구하는 정신, 형식적인 앎이 아닌 자득(自得)한 지식을 실천하는 것 등을 중요시하였다.

덕촌 문학의 주제별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52) 최윤정(2020a), 앞의 논문, 307쪽.

첫째, 치심(治心)과知足(知足)의 삶을 추구하였다. <소심제기>, <이병제기>, <사오와> 등의 작품에서 덕촌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고, 주관 을 갖고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외부적인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역량에 맞는 일을 해나가면서 순리에 따르는 자세를 작품 속에서 구현하였다. 둘째, 혼란한 세태에 대한 대응 의식이 나타났다. 덕촌은 혼란한 세태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진실과 도리를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 성찰하고, 지인들과 소통한 과정을 교유시로 남겼다. 셋째, 의리와 실상(實狀)을 중시하는 양상을 드러내었다. <비효설>과 <복수의>에서 덕촌은 당대에 마땅한 도덕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의리에 맞는 판단을 내리고자 하였고, 허위가 아닌 실상에 부합하는 삶을 추구하였다. 그의 작품에도 이러한 가치 지향성이 반영되어 나타나 있다.

이러한 덕촌의 문학 세계는 명분보다는 실질을 중시하고, 논리적인 비판 의식이 강한 특징을 지니는 당대 소론계 문학의 특징과도 연계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덕촌 문학의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이는 소론계 문학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소론계 문인들과의 구체적인 관계나 당대 문단 경향과의 비교 고찰은 향후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양득중, 『德村集』, 민족문화추진회.
『國譯 德村集』, 한국고전번역원, 2015.
_____,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s://www.itkc.or.kr/main.do>).
- 윤증, 『明齋遺稿』, 민족문화추진회.
『國譯 明齋遺稿』, 한국고전번역원, 2006.
_____,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영조실록』,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s://www.itkc.or.kr/main.do>).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시스템 DB (<http://people.aks.ac.kr>).
- 고영진(2001), 「명재 사상의 형성과정과 한국사상사적 위치」, 『務心과 實心の 유학자 명재 윤증』, 청계출판사, 17~40쪽.
- 김승대(2020), 「덕촌 양득중의 가계와 추승에 관한 연구」, 『陽明學』 58호, 한국양명학회, 5~64쪽.
- 김영주(2004), 「조선후기 소론계 문학이론의 형성 배경(1)」, 『동방한문학』 26집, 동방한문학회, 29~57쪽.
- 유명중(1977), 「덕촌 양득중의 실학 사상-양명학과 실사구시의 절충」, 『한국학보』 6, 일지사, 175~188쪽.
- 이상성(2007), 「명재 윤증과 덕촌 양득중의 학문 교유고」, 『한국사상과 문화』 40집, 한국사상문화학회, 167~209쪽.
- 이미진(2019), 「덕촌 양득중의 조포 고사 인식과 그 의미」, 『어문연구』 47권 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83~308쪽.
- 이형성(2009), 「明齋 尹拯에 대한 後代 評價와 追崇」, 『유학연구』 20집, 충남대학교유학연구소, 127~158쪽.
- 최윤정(2020a), 「덕촌 양득중의 論說類 작품 연구」, 『동양고전연구』 78집, 동양고전학회, 275~310쪽.
- 최윤정(2020b), 「덕촌 양득중의 시대 인식과 대응 양상 - 〈사직소(辭職疏)〉와 〈등대연화(登對筵話)〉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1집, 이화어문학회, 5~35쪽.
- 한정길(2013), 「德村 梁得中 학문의 양명학적 성격에 관한 연구」, 『陽明學』 34호, 한국양명학회, 87~124쪽.

ABSTRACT

Research on Dukchon Yang Dukjung's literature

Choi, Yun-jeong

This study examined Dukchon Yang's evaluation criteria on the literature and characteristics of each literary subjects, focusing on Book 4-6 in miscellaneous writings(雜著) under his Dukchonjip(德村集). Dukchon's writings are about ideological issues than having literary aspects. In particular, poetry and are used as away of communication with other companions, rather than expressing his personal emotion. He described the motivation of composing the poetry, and made the contemporary situation the subject of poem or supplementally explained it, helping us understand the situation and issues in his era.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his direct mention about literature but possible to guess his literature viewpoints by studying on his evaluation of his companion's works or his own editorial articles. Dukchon rejected the false consciousness and emphasized Silhak(實學) which pursued the rightness in reality. This view of literature was characterized in his evaluation of other people and other's writings. Dukchon focused on the internal details of the person or his works rather than his external eminence, and pursued fundamentality rather than false consciousness and the practice of knowledge than knowledge itself.

We can characterize Dukchon's literature into three aspects. The first aspect is his pursuit of Self discipline(治心) and Autosatisfaction(知足). He realized his accommodative attitude to the world's reasonableness in his works rather than blaming the environmental situation. The second aspect is his corresponding consciousness to the chaotic social conditions. Dukchon continuously self-examined to practise the truth and duty he believed, and left the poems as the result of these communications. The third aspect is his expression of focusing loyalty and substantiality.

Above characteristics of Dukchon's literature are related to those of

contemporary Soron's literature which was focused on the reality than the cause and the logical criticism. We can more concretely understand Dukchon's literature through this study which will contribute to enlarge the horizon of Soron's literature.

Key Words Soron(少論), Self discipline(治心), Autosatisfaction(知足), Cause, Reality, False consciousness, Criticism

논문투고일	: 2021.04.15
심사완료일	: 2021.05.02
게재확정일	: 2021.05.10